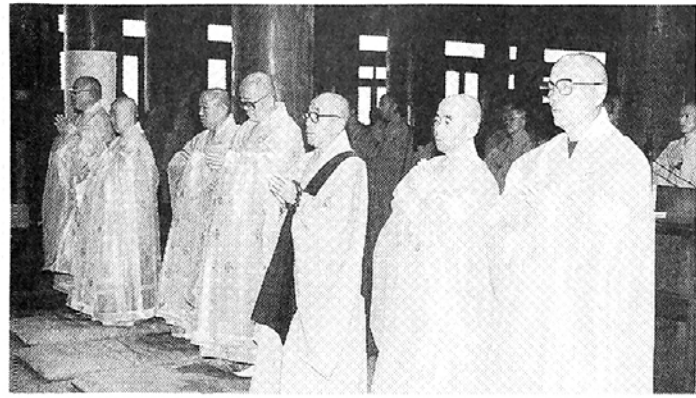


크스님 수행한담

계 지키고 사는 삶



○지난 10월 열린 통도사 단일계단 수계산림에서 보성스님이 증사로 집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으로부터 보성스님, 종진스님, 월하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을 가지않게 여기고 의심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불교가 학문입니까 논설입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신 구경의 그 길로 가는 수행의 연속입니다. 실천인 것이요, 모든 중생에게 내재한 그 빛나는 자성불(自性佛)을 확연히 깨달아 다시는 육도 윤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제자의 삶의 목표이자 특히 출가 수행자에게는 더더욱 참구해야 할 오직 한길입니다. 신도들의 값진 시주공양받고 그 귀한 출가사문의 인연을 다하는 길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물질계의 '농사'에 비유해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의 수행자들은 다시 마음에 세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밖으로만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자기 정진과 체험 없이 남의 말에만 팔리는 것이지요. 이미 부처님의 종자인 불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무명속에서 탐 진 치에 가려져 있는 것은 벗겨내려 하지 않고 밖에서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 사회가 기독교식 서구사상의 주입으로 많은 전통과 가치들이 전도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같은 진리를 접근하려도 방식에서 불교의 가치체계와는 달리

“기도만 하면 반쪽불자 재가불자들도 마음밝혀 깨달도록 스님들이 이끌어줘야”

요즘은 정말 계를 억지로 지키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율이 무슨 논쟁할 거리 아닌 말입니다.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밤에서부터 수계산림을 하는데 자적이 안되는 사람들이 무더기더러구요. 내가 모두 안된다고 했어요. 그 당사자들은 죽기살기로 용을 쓰면서 수계를 시켜 주지 않으면 밤에서 불지겠다고 공갈까지 하는 겁니다. 우선 사중에서 놀래면서 어떻게 '선처를 바라는 분위기가 자못 감돌았어요. 나는 부처님 법계의 일인데 마지막 승단의 보루인 계율마저 문란해지면 안되겠다 싶더러구요. 법안이 따로 있단디까. 그래 단호하게 탈락시켰고 마침내 그들 모두 퇴방했어. 서울퍼런 지계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 원동력으로 정진과 해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육 많이 먹었어. 그래도 나중에는 잘했다는 소리 일찍이었습니.

각자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 자세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법맛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어서 빨리 집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하다보면 질로 가정이 화목해지고 뜻이 합쳐집니다. 결국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지요. 나는 최근 종단에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대해 반갑게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반 행자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상수들과 환영한 사람입니다. 승가상 정립은 행자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예요. 스님으로서 채비도 하지 않고 스님인데 하는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스님옷을 걸치지 않은 것이 해탈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행자때 부터 사미 사미니 까지는 정말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스님의 위와 일상의례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중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물어요, 승단의 신뢰회복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나는 지금으로서는 더 꼭 써야 한다고 봅니다. 종단도 개혁의 대명제를 위해 체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선조 억불시대 일제의 왜색불교, 광복 이후 서구화 등 사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응하고 계도하며 해온 물질들이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불교가 대중화되어야 한다고 포교의 기치를 펴나 들었지만 세속화에 더 깊숙히 물들지 않았습니까. 또 현대화 하면서 계율에 대해 분분한 해석과 논쟁을 생각하는 본말전도현상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중 수행 생활보다는 변질된 도량생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결국 꼭 써야 귀한 부처님 가르침이 사회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 순으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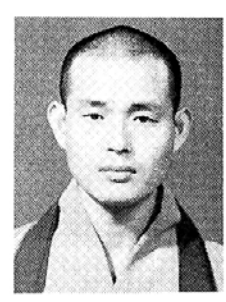
“오계 어렵다 느낄 때마다 참회 하세요 서슬퍼런 지계정신 정진 해탈의 원동력”

경제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아닙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보면 남들이 농사지는 곡식을 거저 먹고, 만들어 놓은 옷을 공짜로 입고, 시주의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집세도 내지 않고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로 삶의 가치를 따지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확인해 주는 것도 결국은 정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탁발때 만난 바라문이 "발을 갈고 썬 뿌리고 먹으라"는 말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땅에와 호미, 부끄러움은 공이자루, 의지는 잡아내는 줄,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믿음과 고행과 지혜 그리고 참회와 굳건한 의지력...이같은 수행자의 덕목들

교육되고 눈앞의 물질에 인격이 팔리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위대한 선지식은 행동과 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만으로 인한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말로만 되는 일도 아니고 실천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출가 사문에게는 닷백가지의 계가 내려지고 재가자들에게는 오계가 설해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청정한 계를 품에 지니고, 지혜를 기르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안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삼학(三學)을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님을 스님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율입니다. 출가도 계를 받들어 지키겠다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시켜서 큰일이예요. 그저 기도하라고만 가르치니 반쪽불자밖에 만들수 없어요. 재가신도들도 사람됨 받고 나온 금생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어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도록 가르쳐야 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밝혀 불성을 깨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5계를 꼭 지키도록 주시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스님들의 몫입니다. 5계 지키는 생활을 해야 진실한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생활하면서 5계 지키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구나 느낄 때마다 부처님께 참회하세요. 그리고 일상에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조반을 준비하면서도 손을 깨끗이 씻고 이 밥을 먹고 서방님과 애들이

4와 경전 천수경



정각스님 중흥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 천수다라니를 외우면 사방의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된다고 해서 많은 불자들이 이를 독송한다. 내가 처음 <천수경>을 접했던 것은 10여년 전, 출가 하루 전날인 약수암 법당에서였다. 바로 송광사로 내려가라고 하신 은사 현문스님께서서는 나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시는 양 나 혼자만을 법당에 앉혀두고 <천수경>을 독송해 주셨다. “수리 수리 마하수리”라는 최초의 어구를 접하는 순간 나는 갑자기 아라비안나이트의 “열려라, 함께!” 내지는 요술담요에 앉아 허공을 나르기 전에 했던 ‘신밧드’의 주문 “수리 수리 마수리”를 떠올리며 커다란 환상의 세계로 몰입했던 경험에 있었다. 그 뒤 행자생활을 시작으로 오랜 동안 나는 <천수경> 자체에 많은 의문을 품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천수경>

2종 및 범본과 브라히미(Brahmi) 문자로 기록된 2편의 다라니 등 총 22종에 달하는 천수경류 경전이 현존하고 있다. 이 경은 A. D. 2~3세기 경 인도에서 형성된 관세음보살 신앙에 바탕을 둔 채 만들어진 밀교부 경전으로, 그 경전 자체는 A. D. 3세기 혹은 4~5세기로부터 7세기 말 경에 걸쳐 단일 경전으로서가 아닌 다수의 천수경류 경전으로서 성립됐다. 그러나 현재 한국불교에 유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위 경전들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취한 채 독자적으로 형성된 의식용 경전이라 말할 수 있다.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현재와 같은 모습의 의식용 <천수경>이 만들어진 것은 1935년의 <석문의법>을 거쳐 1969년 통도사 강원에서 간행된 <행자수지(行者受持)>에서 엮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현재의 의식용

관세음보살 자비사상 핵심 밀교부 위경 한국불교 의식용 경전으로 널리 독송

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해야겠다고 계획하였다. 이후 <천수경>은 내 수행의 화두로서 늘 함께 했고, 그런 연유로 현재 천수경의 성립 구조에 대한 분석을 연구과제로 삼아 <천수경 연구>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천수경>이란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신앙과 관련된 천수다라니 및, 그 신앙의례를 전하고 있는 경전의 총칭으로서, 이를 '천수경류 경전'이라 일컬을 수 있다. 경명의 뜻은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진 관자재보살이 넓고 크며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해 설한 말씀'이다. "나로 다나 다라야아, 나막 알약 사바리아 마하가로니가야" <천수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천수다라니' 앞부분을 예로서, 천수다라니는 먼저 삼보 및 성관자재보살께 대한 귀의를 행하고 '성관자재보살의 자비의 힘으로 탐 진 치 삼독을 소멸한 채 열반을 성취할 수 있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한역경전 가운데는 범본 다라니 5종을 포함한 무려 18종의 천수경류 경전이 현존하고, 티벳장경 가운데

<천수경>은 그 성립 원년이 28년 밖에 되지 않는, 근래 한국불교에 의해 형성된 위경(僞經)임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천수경>은 한국불교 신앙의례의 중심 경전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천수경> 안에는 밀교와 화엄, 정토, 천태법화, 禪 등의 사상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또 이 모두가 한국불교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관음신앙이라는 특질적인 신앙 형태로 종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에는 미륵 및 약사 신앙의 요소는 제외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신해 행 증으로써 표현한다. 믿음(信)에 기초한 불자들은, 신앙 항목에 대해 알(解)고, 이를 생활화(行)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어 가질(證) 수 있다. 여기서 증득(證得)되어지는 것이 바로 열반인 것이다. 이는 <천수경>이 추구하는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천수다라니를 외우으로써 우리는 궁극적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따라서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자기 내면의 성관자재보살께 의지한 채 천수다라니를 독송하자.

불교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투자 불교TV방송주식공모

거룩한 부처님 전에 귀의 하옵고, 불교텔레비전의 가족 모두는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불교텔레비전은 지구촌 불자가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맑고 건강한 방송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경영의 합리화로 투자경영의 이익을 불자님들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서원을 앞당기기 위한 밑거름으로 불자주식공모를 실시합니다. 불교텔레비전이 건설해 나갈 큰 불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997년(불기 2541년) 10월1일~12월15일 사찰 및 불교단체에 비치된 지로용지 또는 전국은행과 농·수·축협 및 우체국에서 지로번호 7614677번으로 입금 하시면 됩니다. 20주 이상 (10만원) \* 불교텔레비전 후원회원 모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 3270-3300, 3347

